

영세 중소기업 제품, FTA로 북미시장을 날다

1. 기업 및 제품소개

- V사는 반도체 기술을 축적하여 한국신기술(NT) 인증, 신기술인정서(KT)를 획득한 업체로서 초정밀 가스감지기를 북미시장으로 수출
- 제품소개 : 초정밀 가스감지기 (제9027.10호)
 - 가연성 가스 또는 코크스로 가스발생로, 용광로 등의 연소가스 또는 연소부산물(연소된 가스)의 분석에 사용. 특히, 탄산가스, 일산화탄소, 산소, 수소, 질소 또는 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용에 사용됨.

2. 장애 요소

기술자에게는 FTA가 너무나도 먼 길!

- V사는 CEO를 포함하여 엔지니어링 3명, 자재관리 1명, 경리직원 1명으로 이루어져 있어 FTA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 부재.
- FTA 활용하고자 상공회의소, 중소기업청 등에서 실시하는 FTA 교육을 참석하였지만, 원산지소명서, BOM 등 관련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느껴 FTA C/O발급 포기

3. 극복 방안

-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FTA 집중 컨설팅
 - 관할세관은 V사가 작성한 BOM을 1차 분석 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, 사후검증 대비 등 종합적인 현장 컨설팅 실시

- 또한, 한-미 FTA C/O, 원산지확인서, 소명서, BOM, 공정도 등 관련 서류작성 추가 지원

● FTA 인식 전환이 FTA 혜택으로 직결

- V사는 FTA 혜택이 수출자에게 직접 돌아오기 보다는 수입자에게만 수혜를 받는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어 FTA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



● 관할세관은 V사의 CEO, 직원과 3차례의 상담을 통해 한-미 FTA의 간접적인 관세특혜 수혜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미국, 캐나다 등 북미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줌

4. 활용 효과

중소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



● 미국 바이어는 '11년에 단발적으로 500~700개의 소량으로 구매해 오던 가스감지기를 '12.3월 한-미 FTA 발효 후 관세 1.5% 감소, 현지 화물핸들링비용 1.2% 절약 등 가격 인하로 35,000개 계약

● V사는 미국을 거점으로 캐나다 등 북미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, 한-미 FTA 활용을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하반기에는 한-칠레 FTA를 활용하여 남미시장의 교두보 확보에 주력 예정

5. 시사점

● 인원이 소수인 영세기업체는 FTA 담당자 및 전문지식 보유자의 부재로 FTA 활용을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

● 그러나 세관 및 국내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석 및 영세기업 대상으로 하는 집중 컨설팅에 참여함으로써 FTA 활용 기회를 획득